

하이닉스 매각방안 재검토 가능성

산업은행장, 공정성 · 투명성 확보 ... 효성 분할매각 논란이 시발점

효성에 대한 특혜 의혹을 계기로 하이닉스의 매각방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20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채권단이 인수의향서를 단독 제출한 효성에 하이닉스 지분을 쪼개서 팔겠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하이닉스반도체 매각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주채권은행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채권단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지분을 전부 아니면 일부라도 매각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왔고 주식매각 안내서에도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1>